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 2학기 제1강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



3일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광주일보 리더스 아카데미에서 박명성 신시컴퍼니 대표가 강연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a@

오늘의 나를 만든 건 ‘역발상’

거침이 없었다. 강의는 2시간을 훌쩍 넘겼다. ‘해남 깊촌 촌놈’이라며 자신을 소개한 박명성(51) 신시컴퍼니 대표, 그는 단단대로가 아닌, 수많은 좌절을 함께 겪으며 배우와 스텁들이 만들어낸 ‘신시’ 작품들에 자신감이 넘쳤다.

3일 라마다 호텔에서 열린 광주 리더스 아카데미 초청 강연에서 그는 30년 공연 인생 동안 그 가슴에 품었던 어머니의 ‘말씀’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다고 했다.

“어머니는 늘 ‘아무리 힘들어도 남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것 하지 마라’고 하셨다. 근데 이게 쉬운듯하지만 무척 어려운 거더라. 작품이 깨질 때도 계약서대로 단돈 10원까지 지급했다. 집은 매번 은행에 담보로 잡히는 신세였지만 돈에 대한 도덕성과 신뢰가 무너지면 생존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다. 제작사가 신뢰를 잃게되면 그건 생명이 끝나는 거다.”

박 대표는 공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계사들과 좋은 인연을 맺은 점을 꼽았다.

“나를 앙아들이라고 소개했던 차범석 선생은 영원한 스승이다. 한국 생활에 지쳐 미국으로 돌아가기 전 찾아왔던 박칼린과의 인연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999년 ‘시카고’를 통해 데뷔했던 인순이 선배는 환갑이 될 때까지 뮤지컬 ‘시카고’ 무대에 서고 싶어한다. 정말 멋지지 않은가. 집념과 열정으로 뚫쳐 있어 훨해도 성공할 거라 믿었던 옥주현이나, 최정원, 정선아 등 모두 신시를 통해 데뷔했다. 신인을 발굴해 과감히 캐스팅하고 한번 쓰고 버리지 않는다. 신시는 스타가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광주 콘텐츠로 감동줄 것

필요치 않다. 신시를 통해 스타를 만들어 왔다.”

박 대표는 “오늘의 박명성을 만든 건 뭐냐는”는 참석자의 질문에 ‘역발상’이라고 답했다.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두려워하는데 난, 어떤 작품을 하더라도 일단 망한다고 생각하고 시작한다. 내가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작품을 제작했던 게 IMF 직후였다. 모두들 몸을 사리고 엄두를 내지 못할 때 공격적으로 제작했다. 정당한 개런티를 지불하는 라이센스 문화를 정착시킬 때도 다들 고개를 갠았다. 그냥 미국 서점에서 대본 구하고 공연에서 몰래 노래 녹음해 무대에 올리는 시절이었다. 남의 작품을 도용하는 것은 그 작가의 영혼을 훔치는 것이다. 공연 문화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는 게 꼭 필요하다고 봤다. 조반에는 돈이 들었지만 결국, 신뢰를 얻어 ‘브로드웨이 박’이 됐고, 작품도 저렴하게 들어올 수 있었다.”

‘뚝심’과 ‘배짱’은 박 대표를 대표하는 단어다. 그는 을 하반기에만 120억 짜리 ‘맘마미야’와 ‘고스트’를 무대에 올린다. ‘맘마미야’ 영국 오리지널립 공연은 관객 첫날에만 30억원 어치가 팔려나갔다.

19일부터는 차범석 희곡상 수상작인 ‘아버지와 나와 흥매와’를 신구·손숙 주

연으로 무대에 올린다. 조정래 원작의 ‘아리랑’은 국내 창작 뮤지컬에서는 볼 수 없는 전자동 무대 메카니즘을 구현하겠다는 목표로 18억원짜리 전자동 무대 시스템을 사들였다. 뮤지컬 ‘오월의 신부’도 대기중이다. 광주 소재 연극 ‘푸른 날’에는 광주와 대구 공연까지 준비하고 있다.

“일을 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다. 열 사람 일을 한 사람이 하는 조직이 있는 반면, 한 사람이 할 일을 열 사람이 하는 조직이 있다. 차이가 뭘까. 조직원들이 신바람, 자부심, 험담을 갖고 일하게 해줘야 한다. 신시와 박명성을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들을 위해 일한다고 느끼도록 해줘야 한다. 본인의 꿈과 비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감성적으로 접근하는 CEO의 자세가 필요하다.”

박 대표는 동아시아 문화도시 예술감독을 맡아 행사를 준비 중이다.

“올해 문화예산이 전체 예산의 1.14%인 3조 8000억원이다. 문화예산 2% 확보가 목표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좋은 문화정책을 개발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 동아시아 행사 때도 ‘광주만의’ 콘텐츠를 가지고 어떤 김동과 즐거움을 줄지 고민하고 있다. 서울의 콘텐츠를 가져올 이유가 없다. 정신문화의 뿌리인 광주와 혼남의 콘텐츠로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보겠다.”

박 대표는 배우가 무대에서 빛나도록 하는 자신은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멋진 꿈을 꾸는 사람’이라는 말로 강연을 마쳤다. /김미온기자 mekim@kwangju.co.kr

삼가 인사드립니다

지난 8월 30일 저희 아버님 故 金斗鉉 長老 (광주서석교회 원로장로) 薵事事에 바쁘신 중에도 柱臨 하시어 尊重한弔意를 베풀어 주신 恩惠에 힘입어 무사히 所望동산에 安葬하였음을 진심으로 感謝드립니다.

일일이 찾아뵙고人事드리는 것이 道理이거나 憂忙中에 우선 紙面을 빌여 인사드리옵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貴家庭에 항상 健康과 幸運이 함께 하시길 祈頤드립니다.

특별히 教團의 어르신들과 全南老會와 光州瑞石敎會의 弔問에 큰 힘이 되었음을 感謝합니다.

2013년 9월 5일

未亡人 김성순
子 김영수
女 김영란
婿 권길웅
子 婦 김정채
孫 김은숙
子 婦 김은아

혈당조절 때문에 걱정되시죠?

유한메디카 식후혈당 상승억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 글리코엔 (N) 골드

식후혈당 상승억제제에 도움을 줄 수 있음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당의 흡수를 억제시켜 Glucose를 조절합니다.

식후 2캡슐씩 하루 2번으로 혈당조절 OK!!

01 식후혈당상승억제제에도움을주어 혈당조절이 잘 되지않을때 혈당조절을 개선시켜줍니다.

02 기능성과 안전성을 인정받은 원료로 제조한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입니다.

03 (주)유한메디카에서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기 위해 정성된 마음으로 완성된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전화주시면 책, 자료, 무료로 우송해 드립니다.

Dom NAVER | 백세생활건강 ▶ 을 검색하세요

선택 1899-3975 H.P 010-3598-7080

금융공기업 같은날 입사시험 ‘담합’ 논란

〈10월 19일〉

금감원·한은·산은에 대기업도 가세… “구직자 선택 자유 침해”

다음달 19일 금융공기업 구직자 수만명이 ‘A매치 데이’를 치른다.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금융기관들이 이날 일제히 입사 필기시험을 보기 때문이다.

일부 대기업도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고 같은 날 시험을 볼 예정이라 대졸 구직자들이 ‘제2의 수능일’로 여길 정도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 금감원, 산업은행, 수출입은행은 10월 19일 대졸 신입 공채 필기시험을 본다. 아직 채용 공고가 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 한국거래소 등 다른 금융공기업도 이날 같이 시험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날 시험을 통해 뽑는 채용 규모만 500여 명에 달해 금융공기업을 준비하는 취업준비생들에게는 ‘A매치 데이’로 불린다.

이들 금융공기업은 평균 연봉 1억원 내외에 정년이 보장되는 등 최고 직장으로 평가돼 구직자들에게 선망의 대상이다. 대졸 초임도 3000만원 중반 대다.

매년 이날 응시생만 2만~3만명 수준으로 전국 대학과 취업학원이 둘씩 거릴 정도다.

이들 응시생은 수백 대 일의 서류 전형을 통과한 인재다.

금융공기업이 한달한시에 시험을 보는 관행은 2000년대 중반 들어 굳어졌다. 서로 우수 인재를 뺏기지 않으려다 보니 자연스레 시험 날짜를 담합한 것으로 추정된다.

한은이 먼저 시험 날짜를 공고하면 금감원이나 나머지 금융공기업들이 은근슬쩍 따라오는 방식이다. ‘신의 직장’ 중에서도 최고 자리를 다투는 한은과 금감원의 자존심 싸움이 얹혀 있다는 분석도 있다.

문제는 금융공기업 ‘A매치 데이’의 판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2010년 경우 한은, 금감원, 산은, 예보, 수은 뿐 아니라 GS칼텍스, 에쓰오일, 한화, SK, KT, LG CNS 등 약 20개의 공기업·사기업이 모두 같은 날 입사시험을 치렀다. 이듬해 역시 전년도 날짜가 같았던 금융공기업에 더해 한국거래소, 신한금융투자, 부산은행, GS칼텍스, 에쓰오일, SK, KT, CJ 등 약 30개의 주요기업이 A매치 데이에 참가하는 등 전선(戰線)은 확대하는 추세다. 일반 대기업들이 금융공기업에 최고 인재들을 뺏기지 않으려는 의도다.

올해도 대기업 다수가 한은과 금감원의 필기시험 날짜를 파악하고 같은 날로 조정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보니 금융공기업 취업을 위한 선택의 기회를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 일부 구직자들 사이에서는 ‘갑의 횡포’라는 불만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고위공무원 지역대학 출신 2.5%

현 정부들어 감소… SKY출신 48% 지역균형발전 저해

정부 고위공무원단 중 광주·전남지역 대학 출신은 2.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민주당 이용섭(광주 광산 을)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가운데 고위공무원단 중 지방대 출신 비중도 지난해 15.8%에서 올해 14.6%로 줄었고, 지방대 국립대 출신 역시 9.5%에서 8.9%로 감소했다.

반면, 박근혜 정부 들어 수도권 소재 대학 출신은 84%를 차지했고, 소위 일류대인 SKY(서울대·고려대·연세대) 출신은 전체 인원의 절반가량인 47.8%를 차지했다.

또한 광주·전남 출신과 비중도 2012년 9.

9%(152명)에서 올해는 9.6%(142명)로 다소 줄었다. 출신 고교별로는 ▲광주제일고 31명 ▲광주고 18명 ▲순천고 14명 ▲살레시오고 10명 ▲대동·동신고 각 9명 ▲금호고 5명 ▲인성·서석·목포고 각 4명이다.

이용섭 의원은 “수도권 대학들이 지방의 인재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전망”이라며 “고질적인 학벌주의, 대학입시 과열, 입시위주 교육, 과도한 사교육비, 수도권 인구 집중 등 당면 사회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대학 발전지원 특별법 제정안’ 등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법률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해남고구마 북한서 재배

해남 고구마가 북한에 재배된다.

해남군은 4일 (사)남북경제협력발전협의회(이하 경발협)와 해남 고구마 북한 지원 사업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해남 고구마와 재배기술을 북한에 지원, 농업협력 기반 구축과 남북 화합의 장을 조성하자는 취지이다.

군은 해남 고구마가 ‘통일 고구마’로 남과 북을 하나로 있는 소중한 매개체로 작용할 수 있도록 협약 이후 고구마 생산을 위한 고구마신 지원과 재배기술 등을 이전할 계획이다. 경발협과 실무협의를 거쳐 북한에 해남 고구마가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다.

군은 지난 2008년 (사)남북농업발전협의회를 통해 북한에 고구마순과 비료 등을 지원한 바 있다.

/해남=박희석기자 dia@kwangju.co.kr

10년간 전남대병원서 운영

광주시립 제2노인요양병원이 완공한 지난 10개월만에 다음주 중 개원한다.

4일 광주시립에 따르면, 제2노인요양병원은 131개 병상을 갖춘 치매 전문병원으로 총 공사비 130억원(국비 27억 원·시비 73억 원·전남대병원 30억)이 투입돼 지난해 11월 말 완공됐다.

광주시는 남구 노대동 빙고로노인건강타운 옆에 들어선 이 병원을 완공과 동시에 개원하려고 노력했으나 장비 구입비 협의와 직원

채용 문제, 전남대병원 내부 사정 등이 겹쳐 병원 개원이 늦춰졌다”고 해명하고 “장기적으로 190 병상을 갖춰야 적자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황을 보아며 병원을 증축하기로 전남대병원 측과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총영기자 redplane@kwangju.co.kr

현장직사원모집

전문인력관리회사인 당사에서는 안정적이며 장기적으로 근무 가능한 분을 아래와 같이 모집합니다.

- 급여 : 1,800,000원
- 상여금 300%분할지급 (3개월 후부터)
- 6개월 이상 근무시 정규직 가능, 상여금 400%
- 근무시간 08:30~17:30 + 3시간 연장, 토요일 특근
- 여자사원은 35세 이하(경력자 40세 미만 까지)
- 남자사원은 35세 미만으로 군필자
- 제출서류 : 이력서(사진부착)
주민등록본 각 1부
- 근무지 : 하남 7번도로, (주)금호전기

※ 초보자 가능, 즉시근무, 정기근무 가능,
작업환경좋음.

주식회사 엠지

TEL. 062-681-5588 HP. 010-2580-3744
FAX. 062-681-5586

*버스운행 : 두암동 → 문흥동 → 오지 → 일곡 → 양신동 → 첨단지구 → 신창지구 → 신가 → 운남지구 → 월곡동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

제일건강 | 편백경침겸용 발목펌프